

강희업 대광위원장, “동탄신도시 트램, GTX-A 환승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기대”

- 21일 오후 동탄 트램 도시철도 사업 현장 찾아 원활한 사업추진 강조

-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21일(금) 오후 3시 화성 동탄 트램 도시철도 사업 현장을 찾아 정명근 화성시장과 사업 진행 상황을 논의 하면서,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였다.
 - 동탄 트램 사업은 동탄2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화성시, 수원시, 오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이다.
 - 총 길이 34.2km의 노선에 36개의 정거장*과 1개의 차량기지를 포함하며, '26년 착공하여 '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.
 - * ①수원 망포역(분당선) ~ 오산역(16.4km, 19개소) ②병점역 ~ 동탄2신도시(17.8km, 17개소)
- '24년 11월 대광위에서 이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하였다.
 - 전 구간을 지상화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, 일부 정거장의 위치를 조정 하여 환승 편의성을 높인 것이 주요 변경사항이다.
- 강 위원장은 “본 사업이 개통되면 동탄역(SRT, GTX-A), 병점역, 수원시 망포역, 오산시 오산역 등 주요 거점을 트램으로 연결하여 28만 명의 주민에게 출퇴근 및 통학 시간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*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 - * (버스) 평균 통행시간 42분 ⇨ (트램) 평균 통행시간 27분(15분 감소, 38% 단축 효과)
 - ‘26년 계획대로 착공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대광위와 협의해 주면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“라고 밝혔다.

- 아울러, 화성시에서 건의한 매송~동탄 고속화도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등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“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	책임자	과 장	안광열 (044-201-5100)
	광역시설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공영만 (044-201-5106)
			주무관	박주영 (044-201-5105)

